【자유교회 소식】

1.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로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17년 자유교회 영적 목표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3. 다음 주일 예배는 2017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4. 오늘 특별 강사로 오셔서 월드비전 사역안내를 해 주시는 박재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 11월 23일 Thanksgiving Day 오후 3시에 특별한 가족모임이 없는 가정은 목사 주택에서 Port-luck 친교모임을 가집니다.
6. 이진우 목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18일(토)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7. 장기 결석자들과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820.00	
감사헌금:	$250.00	
주일헌금:	$20.00	
특별헌금:	$750.00	합계 $1,84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박준화 장로**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제영 집사
찬 양	Special Event	자 원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인 도 자
설 교		박준화 장로
특별사역 보 고	**월드비전 교회 협력팀 한국교회 담당**	박재인 팀장
찬송과봉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 이
파송과기도	주기도문	다 같 이

■ 다음주기도: 김승구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FFC와 연합)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Youth Group	매수 오후 7시(FFC Youth)

2017년 11월 12일 제2017-46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목회단상–서로 다름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이 맺는 관계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태도와 인격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마음 보다는 외모를 보고 드러나 보이는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은 태도와 인격뿐만 아니라 기술에 탁월합니다.

말하는 것이 섬세하고, 설득하는 것이 섬세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섬세하고 배려하는 것이 섬세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 열쇠이자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잘못된 기대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모나 자식에 대한 잘못된 기대, 목사나 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됩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은 서로의 차이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슷한 것보다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욕구와 생각과 판단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존 그레이는 남녀 간의 차이를 연구하고 설명한 자신의 책 제목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여겨야 할 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다 다르게 창조된 것은 갈등과 분열을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려고 할 때 서로 다름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갑작스런 사정으로 급하게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이번 한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 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이며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